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2015. 12. 30.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I. 추진 배경	1
II. 논의 경과	2
III.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	3
1. 조선	3
2. 해운	6
3. 석유화학	10
4. 철강	12
5. 건설	14
IV. 향후 계획	16
[참고] 기업구조조정 체계 및 추진현황	18

I. 추진 배경

- 美 금리인상, 중국 경제 정착률 우려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신흥국의 부채문제도 커지는 상황
 - 美 금리인상('15.12월) 이후, 추가 인상속도 등에 따라 세계 경제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
 - 中 성장세 둔화 및 구조개혁(투자·수출 → 내수) 등은 중국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은 국가들의 성장 하방요인
- 국내적으로는 경기부진이 지속되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전반적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부실화 가능성도 증대
 - 한계기업 수가 증가('09년 2,698개 → '14년 3,295개, 597개 ↑)
 - 특히, 수익성·재무건전성 등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측면에서 정상기업과 한계기업간 양극화 심화

＜전체기업과 한계기업의 재무·영업 현황(한국은행)＞

구 분	전체기업		한계기업	
	10년 → 14년	변화율	10년 → 14년	변화율
이자보상배율	5.1 → 3.9	1.2p ↓	1.0 → 0.7	1.7p ↓
매출액영업이익률	7.1% → 4.6%	2.5%p ↓	4.1% → 3.6%	7.7%p ↓
부채비율	98.4% → 79.2%	19.2%p ↓	200.0% → 222.5%	22.5%p ↑

※ '09년부터 영업을 지속해온 외부감사대상 기업 15,352개 기준 / 한계기업 2,051개

◆ 비생산적 자금흐름을 차단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필요

등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

- 그러나, 산업 차원의 구조적인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에 한계
 - 부실우려 기업의 재무구조개선만으로 근본적 정상화를 이루기 어렵고 지역경제, 협력업체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은행도 기업 구조조정시 당장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므로, 한계기업에 대해 여신을 유지하며 처리를 미루는 경향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정부내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
 - 그간 차관급 협의체 및 실무회의를 통해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건설산업 분야에 대해 집중 논의
- 「정부내 협의체」에서 논의된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지원방향을 기초로 하여,
 - 채권단 및 업체는 기업별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을 추진
-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 부실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몰기한('15년말) 연장을 추진 중

II. 논의 경과

- 최근 조선·해운 등 경기 민감형 산업의 경우 국내외 공급과잉

Ⅲ.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

1 조 선

1. 현황 및 전망

- 금융위기 이후 **상선 발주가 줄고 고유가로 해양플랜트 발주가 증가**했으나, 최근 **유가하락으로 해양발주 급감**
 - 최근 우리 주력선종(대형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등)의 발주는 크게 감소하지 않아 **외형적 수주규모는 유지**하였으나,
 - * 수주량·점유율(백만CGT,%) : ('13) 18.7(35.3) ('14) 12.6(30.8) ('15.1) 5.8(42.7)
 - 수익성 없는 **무리한 수주**는 기업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
 - * 대형3사 영업이익률 추이(%) : ('12) 5.6 ('13) 3.9 ('14) △2.6 ('15.3Q) △13.7
 - 中·日은 벌크선 등 기존 주력선종의 시장침체에 대응, **전문·대형화** 등으로 우리 주력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중
 - * (中) 우량조선소(White List) 발표, (日) 대형컨선 등에 특화된 전문대형화 조선소 출범
- 국내 조선사들은 시장변화에 대응한 물량확보 노력 과정에서 **역량 대비 무리한 수주 물량 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
 - 대형3사는 해양플랜트를 집중 수주했으나, **핵심역량 미흡→납기 지연→수익성 악화의 악순환** 계속
 - **중소조선사는** 각 사별로 채권단 관리하에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나, **고비용·저수익 구조** 지속으로 **경영정상화 지연**
- 향후 조선업은 저유가로 **해양플랜트 수주감소**가 예상되나, **親환경 고부가 선박 수요 증가**로 소폭의 부문별 **시황개선** 전망
 - 대형3사는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기존에 강점을 지닌 고부가 상선에 집중함으로써 '16년부터 **영업이익 개선** 기대

2. 구조조정 방향

- **인력감축**(34%), 임금삭감(10%), 비영업8자산(800억원) 매각 등 **자구노력**
- 채권단은 **추가 신규자금 지원없이** 기결의 **지원예정자금 잔여분**(4,530억원)의 **용도변경 승인**을 통해 **유동성 지원**

< 성동조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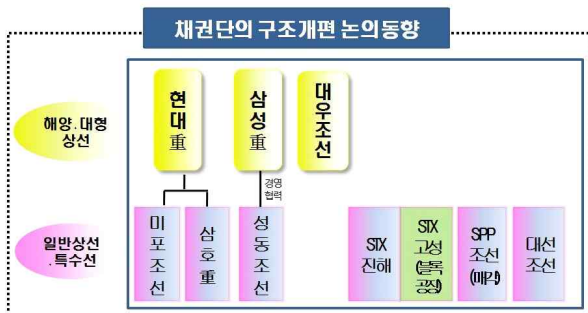
-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16.1월~)을 통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추진중
 - * 15% 인력감축 및 비핵심자산 매각(약 2,500억원) 등

< SPP조선 >

- 채권단은 매각주간사를 선정('15.10월)하고 **M&A 추진중**
 - * '16.1월중 본입찰 실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

< 대선조선 >

- **소형 탱커·컨테이너와 여객선** 특화 조선사로 **생존 모색** 중
 - * 생산공정 일원화(3개 공장→2개 공장 매각·청산 및 제3공장 일원화 등) 및 여객선 시장 진출 추진중



- **과잉공급·과당경쟁** 상태인 조선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 추진**
 -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영정상화를** 모색하되, **정상화 추진** 곤란시 M&A·청산 등 **사업정리** 진행
 - 조선업 전반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다운사이징** 추진
 - 대형사·중견사 공히 **경쟁력이 없는 부문**을 축소하고, 각 사별로 **경쟁력 있는 부문**에 특화
 - **구조적 과당경쟁 방지장치**를 마련하여 **수익성 위주 경영** 유도

< 조선 등 수주사업 수익성평가 기구 신설(11.10일, 부총리주재 간담회) >
 * 정책금융기관의 대규모 조선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시 **전문기관의 수익성 평가를 의무화**
 → 이를 위해 해양금융종합센터 內 **“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 설치(16년 상반기) 추진

3. 주요 조선사별 채권단 대응현황

< 대우조선해양 >

- 산업은행, **경영정상화방안** 발표('15.10.29)
 - '16년까지 산은·수은이 **총 4.2조원 유동성 지원** 및 산은 책임하에 **2조원 이내 자본확충**
 - **회사는 유류자산 매각, 인력감축 등 비용절감**(총 1.85조원 규모) 등의 **자구노력**
- 회사와 채권단은 **'15년 신규자금 1조원, 유상증자 4,142억원 등 정상화방안을 계획대로 이행** 중
 -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여타 **대형사는** 원가절감, 수익성 위주 수주 집중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추진 중
- < STX조선 >
 -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채권단 협의** 중(연내 완료)
 - **다운사이징**을 통해 탱커·LNG선 **특화 중소조선사**로 전환 추진

2 해 운

1. 현황 및 전망

- 최근 **세계 해운업은 구조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 인수·합병 등 **글로벌 해운시장 재편도 가속화**
 - 세계 교역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을 하회하면서, **물동량 증가가 둔화**되고, **선복량 과잉으로 운임 약세** 지속
 - * 교역 성장률/경제 성장률 : 2 상회(86~00) → 1.3 수준(01~10) → 0.9 수준(11~14)
 - * SCFI : ('10) 1,367 → ('12) 1,254 → ('14) 1,072 → ('15.平) 732
 - Maersk(1위)는 비상경영안을 발표(11.4일)·실행중이며, CMA CGM(3위)·NOL(12위)간 합병(12.7일) 및 중국 양대 선사간 합병 추진중
- 국내 대형 해운사들은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장기간 해운업 침체**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 지속
 -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과 시장안정 P-CBO 지원으로 차입금 상환 등 **단기 유동성문제** 해소에 주력
 -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고효율·에코쉽** 신규 투자가 사실상 중단되어 **원가 경쟁력 열위** 상태 지속
- 향후 해운업은 **선복량 과잉 해소***와 **운임회복**에 **상당 기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며,
 - **국내 해운사는 단기적 유동성 부족** 문제와 **근본적 선대 경쟁력 확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상황
 - * '16년 선복량증가율(4.8%) > 물동량증가율(4.3%) → 시장 회복 지연 예상(Clarkson)
 - ※ 중소형 해운사는 진입과 퇴출이 원활히 일어나는 등 시장자율적인 구조조정 진행 중

2. 구조조정 방향

- ◇ 현재의 선대구조로는 근본적 경쟁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국적 선사의 **장기적인 존립**을 위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 ◇ 개별회사의 **유동성** 문제는 원칙적으로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소**하되,
 - 자체 대응이 어려울 경우 **회생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조조정 원칙에 맞추어 처리**

□ 해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실시

- 민관합동의 ‘선박펀드’를 **조성**하여 **BBC방식(Bare Boat Charter)***으로 **선박 신조 지원**(☞ 세부 내용 별첨)
- * 용선 종료시 소유권이 선박펀드에 있어 해운사(용선사)가 매각 및 선가하락 Risk를 지지 않고, 운용리스크 회계처리(부채비율 영향 無) → 해운사 선호
-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 등을 통해 **재무상태가 일정 조건**(부채비율 400% 이하) **달성시에만 지원**하여 **자체적인 정상화 노력도 유도**
- 초기 **12억불** 규모로 추진하되 **수요를 보아가며 확대**

□ ‘운임공표제’를 **강화**하여 시장질서는 확립하고, 대형 선사들의 운임 Dumping 행위를 **집중 단속·제재****

- * 대상 확대(10개 항로, 36개 항만→전 항로, 전 항만, 운임 협상 범위 20%~40%로 축소)
- ** 불이행 및 차등 적용 선사에 과징금 부과, 등록 취소, 기항 금지 등

□ 국적 선사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부산항 환적 경쟁력 강화** 유도

- **부산** 신항에 인근해 선사물량 우선처리를 위한 **부두 마련**
- 국적 선사가 포함된 얼라이언스의 환적 물량 유치 활성화를 위해 **터미널 간 환적화물 이동(ITT) 효율화** 추진
- **시황 변동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 해운거래소 설립** 추진

- 운임변동 등에 따른 해운사들의 리스크 헷징을 위한 운임선도

- 7 -

거래 시장 조성

□ 해운 기업 부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정보 공유 강화**

- 기업 부실이 산업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사간 신용선 현황, 해운 부대업 거래 연체 정보 파악·공유**

3. 채권단 대응현황

□ 그간 업황 개선 기대속에 **대형해운사의 자산매각 등 자체노력**과 함께 채권단 등은 **시장안정 P-CBO** 등 지원

- 해운사는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적극 추진
 - * 자구이행('15.12월) : 현대상선 2.5/2.9조원(89.2%), 한진해운 3.0/2.5조원(122.9%)
- **채권단** 등은 **시장안정 P-CBO**를 통해 **시장차입금 차환**(‘13.7월~) 및 **운영자금 기한연장** 등 지원
 - * P-CBO : 현대상선 1조 432억원, 한진해운 8,387억원 등 총 1.9조원
 - * 운영자금 등 : 현대상선 5,192억원, 한진해운 2,857억원 등 총 0.8조원

□ 그러나, **업황 부진이 심화되면서 제한적인 자본확충** 등 기존 자구노력과 지원만으로는 **여전히 정상화**에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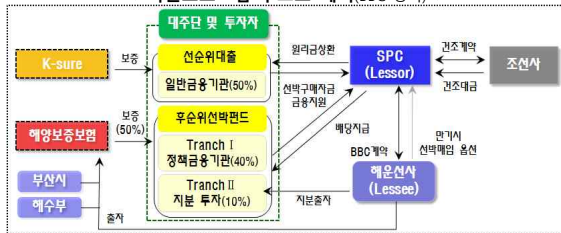
➔ **채권단**은 해당 기업별로 **경영상황을 점검**하여 **자본확충·자산매각** 등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마련하여 유동성 문제에 대응 중

- 8 -

<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

□ 민관합동의 ‘선순위 대출 및 선박펀드’를 조성하여 BBC방식(Bare Boat Charter)으로 **선박 신조 지원**(1척 발주시 각각 SPC 구성)

< 지원프로그램 구조도 예시(BBC 방식) >



□ (지원조건) 해당 기업이 자구노력 등을 통해 **재무상태가 일정 조건**(부채비율 400% 이하)을 **달성**

□ (지원대상)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대형·고연비 선박 신조를 우선 지원

- * 출자자가 지분율에 따라 참여

□ (조성규모) 초기 **12억불** 규모 [※ 향후 수요 감안 확대]

□ (투자자) 일반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 해운선사 참여

- (선순위) 일반금융기관(전체 조성규모의 50%)
- (후순위) 정책금융기관(전체 조성규모의 40%), 해운사(10%)
 -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은 캐피탈 등
- **해운사**는 선박 펀드에 일정 지분(Equity, 10%) 투자
 - * 통상 BBC 방식과 달리, 펀드 성사가능성 제고를 위해 해운사도 후순위 일부 참여

□ (보증) 선순위는 무역보험공사가, 후순위는 해양보증보험이 일정부분(예 : 50%) 보증

- 9 -

3 석유화학

1. 현황 및 전망

□ 석유화학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던 **중국의 자급률 상승***, 셰일가스 등 저가원료 기반 설비투자 확대로 경쟁 치열

- * 중국 석화품목 자급률 추이(%) : ('12) 70.7 → ('14) 79.1 → ('17*) 83.1

○ 한편, **저유가**의 영향으로 유가 탄력성이 큰 나프타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 * 주요업체 분기별 영업이익률(%) : ('14.1Q) 3.9 → ('14.2Q) 3.3 → ('14.3Q) 4.2 → ('14.4Q) 2.5 → ('15.1Q) **6.2**

□ 품목별로는 **합성원료** 분야가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 전망

< 품목별 업황 전망 >

- ① (기초유분) '17년까지 **호조세 지속** 전망, '18년 이후 **시황 악화** 가능성
- ② (중간원료) '13.下 이후 **시황부진 지속** 중이나, '17년 이후 **개선** 전망
- ③ (합성수지) '17년까지 **실적 양호** 전망
- ④ (합성고무) 원료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
- ⑤ (합성원료) **영업적자** 시현 중, '18~'19년까지 **공급과잉 지속** 전망

○ 특히, 합성원료 중 **TPA(테레프탈산)**는 중국의 대규모 증설로 인한 공급 확대, 수요산업의 부진 지속* 등으로 **사업여건 악화**

- * 세계 TPA 수급 전망('13~'18, 연평균 증가율) : 생산설비 7.9%, 수요 5.4%

2. TPA 분야 구조조정 방향

□ 글로벌 **공급능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수요부진**으로, **수익성 악화** 지속 전망

- 10 -

* TPA 수익성 현황(손익분기점 \$200/톤) :
(‘11) \$223/톤 → (‘13) \$74/톤 → (‘15.1Q~3Q) \$84/톤

- ‘12~‘15년간 **국내업체들의 누적적자는 총 8,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 TPA 업계 영업이익의 현황(‘15.11월) > (단위: 억원)				
‘12	‘13	‘14	‘15°	계
Δ3,028	Δ2,244	Δ2,173	Δ1,005	Δ8,450

- 업계 자율적인 감산 또는 **설비폐쇄·전환** 추진 중

- 글로벌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일본 등 **주요국도 생산설비 감축***으로 대응 중

* (일본) ‘16년까지 약 120만톤 감축, (대만) ‘15.3월 CAPCO社 80만톤 폐쇄, (중국) ‘15.3월 원동석화(320만톤) 가동중단

- 글로벌 가격경쟁력 상실, 수요회복 지연 등으로 **TPA 분야 설비조정** 등이 필요

- 정부는 **업계의 자발적 설비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

3. 업계 대응현황

- 업계도 생산설비를 약 30%(약 150만톤) 감축해야만 수익성 회복 등이 가능하다고 인식

- ‘15.7월 이후 **업계 자율적으로** 마련 중인 **생산설비 조정방안**을 조만간 확정하여 TPA분야의 구조조정 예정

4 철 강

1. 현황 및 전망

- 중국발 철강수요 둔화와 공급과잉 심화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

- 11 -

- 특히, 최근 원료가격 대비 판매가격 급락*으로 **수익성 악화**

* 합금철 원석 수입가 하락(10~20%) < 합금철 판매가 하락(20~40%)

- ‘14년 업계 평균영업이익 **적자전환** 이후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정상영업이** 어려운 상황

< 망간합금철업계 영업 실적(‘13~‘15.3Q) >

매출액 (조원)			영업이익 (억원)			영업이익률 (%)		
‘13	‘14	‘15.3Q	‘13	‘14	‘15.3Q	‘13	‘14	‘15.3Q
1.5	1.4	0.9	207	Δ47	Δ645	1.4	Δ0.3	Δ7.0

- 경쟁적 설비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요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망간합금철 분야 설비조정** 등이 필요

- 정부는 업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설비조정**을 통해 감축목표(89만톤→50만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3. 업계 대응현황

- 업계도 향후 수요전망 등을 감안할 경우, 생산능력을 약 40%(약 40만톤) 정도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 현재까지 **11만톤의 설비폐쇄**를 완료했으며, ‘15.9월 이후 **추가적인 설비감축** 방안을 망간합금철 업계 자율적으로 마련중

- 13 -

고 있음

- 다만, 최근 자발적 사업재편, 일부 내수경기 회복, 무역구제조치 등으로 **국내업체들의 업황이 개선** 중이며,

- **2~3년 후 一帶一路(中)·아시아 인프라** 건설 등이 본격화될 경우 **업황이 다소 회복***될 가능성

* WSD Inside Track #144(‘15.10월), 세계 철강산업 동향(수출입은행, ‘15.9월) 등

□ 품목별로는 합금철* 분야의 수익성 악화 전망

* 철강 제련 과정에서 산소·유황 등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철강 성질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부재료

< 품목별 업황 현황 및 전망 >

- ❶ (고 로) 별도의 설비조정 없이도 **전실한 영업기반 유지** 전망
- ❷ (전기로) 자발적 설비조정으로 **가동률 증대** 및 **수익성 개선**
- ❸ (열연·후판) 전방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설비조정으로 **‘15년 영업이익 개선**
- ❹ (냉 연) 자동차 해외공장 신설 등으로 **시황 개선**
- ❺ (통형강) 건설경기 호조, 무역구제조치 등으로 **경영여건 호전**
- ❻ (합금철) **수요부진**으로 **‘14년 이후 영업적자 시현** 중

2. 합금철(망간합금철) 분야 구조조정 방향

- ‘08년 이후 수요 대비 생산설비확대(‘07년 38만톤 → ‘15년 89만톤) 폭이 과다하여 **현저한 공급과잉** 상태

- 전방산업 부진 장기화로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별업체들의 **영업부진도 심화**될 가능성

- 12 -

5 건 설

1. 현황 및 전망

- **국내시장**은 ‘09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모습

- 특히 ‘15년중 **건설투자는 성장폭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건설수주는 1~3분기 누적액(95.7조원) 기준 역대 최고치**

* ‘15년 건설투자 : (1분기) 0.6% → (2분기) 1.6% → (3분기) 5.2%

<건설투자 및 수주실적>

(단위: 조원, 전년(동기)대비 변동률(%))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3Q(누적)
건설투자	208.2 (3.5)	200.6 (Δ3.7)	193.8 (Δ3.4)	186.1 (Δ3.9)	196.3 (5.5)	198.4 (1.0)	149.0 (2.6)
건설수주	109.1 (5.0)	89.8 (Δ17.7)	95.3 (6.1)	89.4 (Δ6.2)	77.9 (Δ12.9)	89.8 (15.3)	95.7 (50.9)

* 건설투자는 실질(2010년기준, 한원), 건설수주는 상위 54% 종합건설업체 대상(통계청)

- ➡ **금년말까지는 회복세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나, **내년에는 금년보다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

- 주택 부문은 **상승세**를 이어가나 **소폭 둔화**될 수 있으며, 비주택은 혁신도시 등이 마무리되면서 **소폭 증가** 전망
- 토목 부문은 **건설수주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도 금년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해외시장**은 유가하락 등으로 **성장세 둔화**중이며,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액(10월말, 377억불)도 지난해의 71% 수준

- ➡ 향후 **해외시장** 성장은 **정체 또는 소폭 감소**로 전망되며, 수주는 도급공사 위주에서 **PPP(민관협력사업)**로 **전환** 추세

- 지역별로 **중동**은 유가하락 등으로 **보합**세, **아시아** 남미는 주요 개도국 성장둔화로 **성장세 소폭 둔화** 예상

- 특히, **플랜트 분야**는 지난 10년간 상승세에서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며, **저유가** 현상 지속시 **가속화** 우려

2. 구조조정 방향

- 14 -

◇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적 구조조정**과 함께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시행

- 감소하는 시장규모에 맞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
 - **입찰제도의 변별력** 및 **보증의 선별 기능 강화**로, 우수업체는 성장하고 **부실업체는 퇴출되는 환경 조성**
 -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책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16년 본격시행)
 - 부실업체 **실태조사*** 및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부실업체 적발 및 퇴출
 - * 등록증 불법대여,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등
 -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KOIF)* 조성**, 해외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 관련 대책** 추진
 - *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해외인프라사업 투자를 위해 한국투자공사(KIC)의 투자자금 20억불을 「**코리아 해외 인프라펀드**」로 설정(‘15.10.23)
 - **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방안(‘15.11.10)

3. 채권단 대응현황

- 일부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 및 잠재적 위험 대비 차원에서 **상시적 구조조정 추진중**

< 건설사 구조조정 추진현황 >

- **대기업** 신용위험평가(‘15.7월, 12월) : 건설사 **14개사**(C등급 2개사, D등급 12개사) 선정
-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15.10월) : 건설사 **8개사**(C등급 1개사, D등급 7개사) 선정

- 향후에도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구조조정 지속 실시**

- 15 -

IV. 향후 계획

- ◇ 채권단 중심으로 정기 및 수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상시·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지속 추진**
- ◇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 방향**을 마련하여 **채권단의 구조조정 지원**

< 상시·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지속 추진 >

- 채권단 주도의 **상시적 위험진단** 및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유도**
 -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4월),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5월) 등을 통해 **대기업그룹의 부실 위험**에 선제적 대응
 - **(개별기업)**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고 **정상화 가능성**에 따라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추진**
 - *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 4~6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 7~10월

- 기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가면서, 필요시 **수시 신용위험평가 실시** 등을 통해 **적극적 대응**

< '15년 채권단의 기업 신용위험평가 >

- **대기업** : 총 **54개사**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 (C등급 27, D등급 27)
 - * '14년(34개) 대비 59% ↑
- **중소기업** : 총 **175개사**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 (C등급 70, D등급 105)
 - * '14년(125개) 대비 29% ↑

< 구조조정 사후관리 강화 >

- 금감원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신용평가사·회계법인 등)과 **공동으로 현장점검 실시**(‘16.1월)
 -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지도할 예정**

< 기업구조조정 관련 입법 지속 추진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속 추진
 - * 기업이 자발적으로 과잉설비 해소 또는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시, 상법·공정거래법상 신고·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등 패키지 지원 제공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입법 추진
 - **기촉법 개정안**의 금년내 국회통과가 사실상 어려워 **기촉법 실효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 * 현행기촉법 유효기간: '14.1.1일~'15.12.31일
 - **기촉법 일몰시 최대한 빠른 시간내 제입법을 추진**

※ 기촉법 제입법시까지의 대응 방향

- 금년 신용위험평가 결과 선정된 **C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내 워크아웃**을 신청하도록 조치
 - **주채권은행**이 ‘**금융기관협의회 소집 통보**’시 **기촉법 계속 적용 가능**
- **기촉법 제입법시까지** 발생하는 **부실기업**은 ‘**자율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구조조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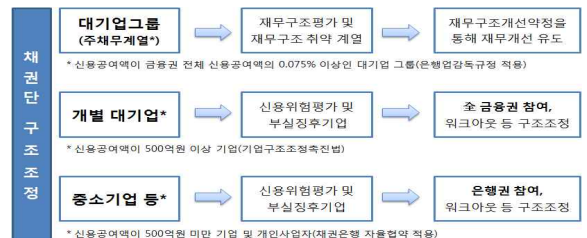
< 업종별 구조조정 추진 >

- **취약업종** 등 **산업구조조정** 관련 사안이 있을 경우 「**정부내 협의체**」 회의를 통해 **구조조정 방안**을 지속 논의 예정

참고 기업구조조정 체계 및 추진현황

1. 기업구조조정 체계

-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과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으로 대별
 - **(법원 주도)** 「**통합도산법**」(‘06.4.1일 시행)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 * 종전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통합도산법)’로 통합 제정·시행
 - **(채권단 주도)** ① **주채무계열 제도**, ②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③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따라 **대기업 그룹** 및 **개별기업**(대기업·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
-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추진체계**
 - ① **대기업 그룹 구조조정 : 주채무계열 제도**(은행업감독규정)
 - 매년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대기업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 **취약계열**에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5월)
 - ② **개별기업별 구조조정**(기촉법 및 채권은행 자율협약)
 -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에 **대기업**은 **상반기**(6월), **중소기업**은 **하반기**(10월)에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



- 17 -

- 18 -

2.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 주채무계열 >

- '15년 주채무계열 선정 및 재무구조평가('15.4월)

○ (선정 결과) '14년말 금융권 신용공여액 1조 2,727억원' 이상인 41개 계열을 선정(전년대비 1개 감소)

* '13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액(1,697조원)의 0.075%

○ (평가 결과)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 등을 대상으로 재무구조개선 약정 또는 정보제공 약정 체결('15.5월)

⇒ 주채권은행은 약정 대상 업체에 대하여 자구이행(매분기) 및 약정 이행 전반(매반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
- '15년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15.12월)

○ (실시 개요) 채권은행들은 주채무계열의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외부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15.10월~)을 실시

○ (평가 결과) 11개 계열사가 현재는 정상이나 위기상황시 취약요인이 있어 선제적 자구노력이 필요

⇒ 주채권은행은 이들 기업들에 대해 계열 스스로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이행상황을 관리해 나갈 예정

< 개별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 기촉법 적용 >

- '15년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 (정기)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중 572개 세부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실시('15.7월)

- 이중 35개사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C등급 16, D등급 19)

○ (수시) 총 368개 세부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실시('15.12월)

- 이중 19개사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C등급 11, D등급 8)

○ 정기,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합할 경우 총 54개사로 전년(34개사) 대비 58.8% 증가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대상 업체 현황>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구조조정대상 업체	36	40	34	54
C등급	15	27	11	27
D등급	21	13	23	27

(단위 : 개)

< 개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 채권은행간 협약 적용 >

- 채권은행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기업 중 1,934개 세부평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 실시('15.10월)

○ 이중 구조조정 대상 업체는 175개사*(C등급 70, D등급 105)

* 전년(125개사) 대비 28.6% 증가

➡ 향후 워크아웃 대상(C등급)에 대해서는 신속한 금융지원, 자산매각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

- 부실기업(D등급)에 대해서는 기업화생일자 추진 등 신속한 정리 유도